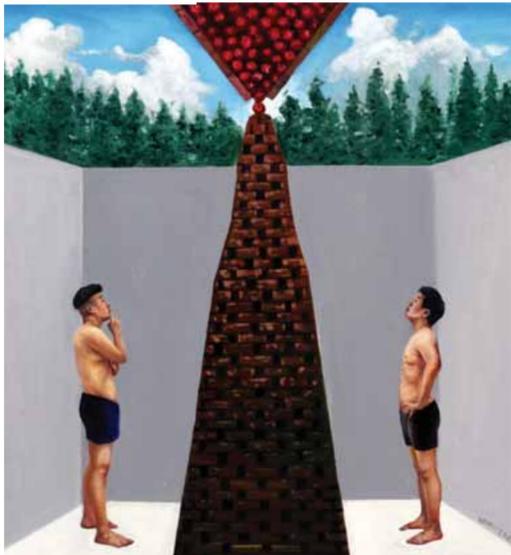


담양·해남서도 현대미술 축제 즐긴다

광주·전남 갤러리·미술관 10곳서 광주비엔날레 기념전



엄기준 작 '두 사람'



송영학 작 '참살이'

'2016 광주비엔날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으로 본전시를 확장한 데 이어 지역 사립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공식 기념전을 진행한다. 올해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와 부합하는 기획전을 여는 10곳을 엄선했다. 특히 전남 지역 미술관도 포함돼 자연을 벗삼아 관광과 작품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담빛예술창고 '컨템포러리...'전
발산마을 뽕뽕브릿지 한중교류전
행촌미술관 '풍류남도 ART...'
은암미술관 '미학의 타투전'

죽목원, 관방제림 인근에 위치한 담양 담빛 예술창고에는 낡은 양극 창고를 개조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컨템포러리 아트 담빛 미래를 열다'전이 10월4일까지 열린다. 김상덕·김원·노여운·라규재·배수민·백상욱·송필용·신창운 등 광주, 전남·북 지역 작가 15명이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삶과 예술이 어떻게 융합하는지 보여준다. 뱃머리에 우두커니 앉은 사람을 등장시킨 김상덕 작가의 'no.301'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김원 작가가 출품한 'alcoholic'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군상들을 소재로 했다. 신창운 작가는 '육망' 시리즈를 통해 사유와 성찰을 제공하고 최요안 작가는 '분노하라'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일깨운다. 515갤러리, 갤러리 씨니, 소아르갤러리, 더 프르방스 갤러리가 문진 '가 갤러리 연대'에서도 '컨템포러리 아트 인 광주'를 동시에 개최한다. 문의 061-380-3488.

담빛예술창고에서 걸어서 약 20분거리에 위치한 대담미술관에서는 박준석 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SHADOW IN THE MORNING'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1-381-0082.

해남 행촌미술관은 곳곳에서 지역과 어우

진 전시를 진행한다. '2016 풍류남도ART프로젝트' 일환으로 10월30일까지 '고라니가 키우는 콩밭'(배정아농부네 예술창고), '낙원 가까이 해장'(해장 주조장), '녹우당에서 공자를 상상하다'(녹우당 총현각) 등을 연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발산마을 폐 가구창고를 활용한 뽕뽕브릿지는 11일까지 한중교류전 '점화(点火)'를 연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12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현대미술을 선보인다.

엄기준 작가가 출품한 '두 사람'은 벽돌로 쌓은 탑 위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두 남성이 등장한다. 자연 속 사각 방 안에서 팬티 차림으로 서있는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혜리 작가 작품 '점화 발화'는 단아하게 눈을 감고 있는 여성 한쪽 머리에 불이 붙은 모습을 표현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 '정중동(靜中動)' 분위기를 풍기며 사유와 성찰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 선진동 작가는 'hero No. 12'를 전시한다. 중국 공산당원을 알루미늄으로 형상화한 뒤 찍은 사진 작품이다. 전체가 빨간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전시를 감상한 후 발산마을 곳곳에 위치한 설치작품도 빼놓지 말고 봐야한다. 문의 010-5683-0508.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인근에 자리잡은 은암미술관은 흔히 않은 타투 작품을 전시 주제로 잡았다. 8일까지 '현상학적 미학의 타투전'을 만날 수 있다. 한솔(김동혁), 김세형, 지강(문병일), 백경원, 윤미호씨 등 작가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타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작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또는 패션 아이콘으로서 타투를 보여준다.

한솔(김동혁) 작가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세형은 일본 전통극에 등장하는 귀신 '한나'를 묘사했으며 작가 백경원은 장미꽃 등 회화와 접목한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문의 062-231-5299.

그밖에 국윤미술관 '인연, 그 후', 광주롯데갤러리는 '나경택 사진전', 한화원미술관은 '근대 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의 정선전'을 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이남 작가가 구글과 협업해 '틸트 브러시'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틸트 브러시'는 VR기기를 착용한 후 가상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서 3차원 입체 그림 이이남 작가 미디어아트 '새장'

구글과 협업
세계 첫 '틸트 브러시' 기법
부산비엔날레 신작 공개
광주서도 기술·작품 소개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마이너 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은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낀 채 허공에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 먼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됐지만 곧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이남 작가가 구글과 협업을 통해 신기술 '틸트 브러시'(Tilt Brush)를 활용한 작품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틸트 브러시'는 HMD(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기기)와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상공간에 3차원 입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상현실(VR) 시스템 중 최고 수준이다.

이 작가가 '2016 부산비엔날레'(9월 3일~11월30일)에 출품한 작품 '흔들하는 지구'는 한단계 진보한 미디어아트 세계를 보여준다.

가상 공간 안에서 왼쪽 손에는 팔레트, 오른쪽 손에는 붓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들고 그림을 그린다. 허공에 붓이 지나갈 때마다 꺾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실제 그림을 그리듯 색상, 붓 굵기를 달리하며 작업할 수 있

다. 기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작업자가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니터를 통해 작업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아트가 평면 화면에 구현된 영상 작품이라면 '흔들하는 지구'는 실제 사물을 보듯 360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부산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은 체험형 시스템이다. 이 작가는 정약용이 쓴 '주석' 중 자연의 이치를 다룬 한자를 금빛 이미지로 형상화해 배경으로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이 작가가 만든 배경을 바탕삼아 붓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한다.

'틸트 브러시'는 '예술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광주비엔날레와도 맥락이 일치한다. 현재는 예술 분야에만 활용되고 있지만 상용화되면 장거리 회의 등 일상 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에 가장 민감한 미디어아트 분야인 만큼 이 작가는 지난 6개월간 프랑스 파리 구글연구소를 왕래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이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예술적 감성을 따라올 수 없다고 느꼈다"며 "꾸준히 구글과 협업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과도 연계해 광주 시민들에게 기술과 작품을 소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성악그룹 '이 칸판띠' 모차르트 오페라 공연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성악 그룹 '이 칸판띠(I CANTANTI)'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목요상설 무대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속 여인들'을 공연한다. 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와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들 중 소프라노의 아리아만을 골라 갈라로 선보인다.

'코지 판 투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아,

보라, 나의 자매여'를 선보이고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그대는 아가, 사랑의 괴로움을', '그리운 시절은 가고' 등을 들려준다.

'이 칸판띠'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조선대 음악교육과 이한나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성악 전공자 전문 연주단체이다.

이번 공연에는 이한나 교수를 비롯해 나혜숙, 노선진, 박수연, 임현진, 권효진, 서민지, 강하은, 김한솔, 김완조, 조주은, 백다원, 김주연 단원이 함께한다. 무료 공연. 문의 062-67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호남 문화대축제

2016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광주전변 특설 행사장(광주공원 앞) **9/30(금) ~ 10/2(일) 3일간**

총장축제 기간중

국·민·대·통·합을 위한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7174-1257

회합과 상생으로
영·호남의 오작교를 잇다

주최 **광주일보사**

공동주최 **每日新聞社**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